

<7강 Intro>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하 강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왕으로 복귀하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은 다윗의 수치가 물러가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간의 갈등과 이들 틈에서 시작된 세바의 반란으로 외부의 적만큼 내부의 적도 무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2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텐데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위하여 기록된 부록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온 사건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품어주었습니다. 이 장면에 이어서 2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1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흉년으로 먹을 음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말씀해주십니다.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사울이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까지 함락해 오자 기브온 족속은 두려워하며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같이 보이도록 끊어진 옷차림과 곰팡이난 음식을 가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어느 이방인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를 어긴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한 조약이 있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단일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던 것입니다. 이에 기브온 족속은 복수심을 가득안고 시간이 흘러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언약을 깬 사울 왕의 자손 일곱 명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내주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일단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을 명단에 올립니다. 알모니와 므비보셋입니다. 여기서 므비보셋은 동명이인입니다. 다윗이 잘해 주었던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준 므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내어준 므비보셋의 엄마 리스바는 사울의 첨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이란 장관에게 있었지 이스보셋은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아브넬 장관이 실권을 잡고자 사울의 첨을 범하게 되는데 이 첨이 바로 리스바였습니다. 이 리스바의 두 아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아들 다섯을 넘겨줍니다. 메랍은 사울의 장녀였으며, 사울이

처음에 다윗에게로 주기로 약속했던 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들 일곱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건내주었고, 이들은 나무에 매달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모니와 므비보셋의 엄마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바위 위에 짙은 베를 펴고 죽은 아들들의 시체에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킵니다. 이 일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바로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 후에 안장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 다윗도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였는지 마음을 고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함께 장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신 수습을 머뭇거렸지만, 사울 가문에 은혜를 베풀며 합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리스바의 헌신적인 모성애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와 더불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딱한 형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일곱명이 조상들과 함께 묘에 안장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근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에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할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를 알고 블레셋의 한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이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간청합니다. '등불'은 '생명'과 '번영'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말로 등불이 깨진다는 것은 '죽음'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등불이기에 깨지면 안된다는 것이었죠.

이후 여러 곳에서 거인 족과 싸우지만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등불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고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키려해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세상에 삼켜질 수 밖에 없지만 이 약속 때문에 구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이 시는 마치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하나님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한나는 브닌나의 팁박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한나와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勒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기도가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다윗의 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선포했던 것이죠.

다윗은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며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행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의 시를 지었듯이 다윗이 임종하기 전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세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을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줍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세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 처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형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시를 지어내죠. 이는 배워서 지은 시가 아니라 철저히 삶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을 표현해낸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로 소개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 표현했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택한 이상 끝가지 너를 불들어 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 시절부터 악기를 잘타는 자로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불렀던 노래는 항상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죠. 이 노래가 그의 인생을 참된 왕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 표현합니다.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6절부터 7절까지는 사악한 자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용사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사 중 가장 뛰어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셉밧세벳,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적에게서 자유로워졌으며 심지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전의 세 사람보다 다소 능력이 뒤쳐지지만 용감했던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세 사람 중 하나는 아비새, 또 한 사람은 브나야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블레셋 부대가 지키고 있던 성문 곁 우물에 침투하여 물을 떠옵니다. 세 사람은 다윗의 작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만 생각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무감과 충성심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 세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부어버립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떠온 물인데 그 자리에 부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물을 세사람의 피와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으며 이 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시는 이러한 일을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삼십명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이는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훌륭하게 조직력을 갖추었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용사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발했으며 심지어 정복한 이방 나라에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파던지, 어느 민족인지 따지지 않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봉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뽑힌 용사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달랐지만 단 하나는 동일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변나라들을 정복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기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한 귀한 일꾼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데요.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마지막 시점에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자신의 세력이 어느정도 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24: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윗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죄를 짓게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1: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미혹하여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이 떠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하는 기도는 “주님!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치 마소서. 언제나 나를 불잡아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게 인간이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처음에 요압장군은 이를 반대합니다. 인구조사를 안해도 하나님께서 백 배나 더 해주시는데 구지 왜 이러한 일을 하냐는 것이죠.

백성의 수를 세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인데 왜 왕이 나서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계속해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재촉합니다.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9개월 20일이라는 시간을 걸쳐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이스라엘 열지파에게서 팔십만명, 유다지파에서 오십만명으로 총 백 삼십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아 내가 이정도는 되는 구나"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끝나고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하여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세 가지 재난을 주시면서 이 중에 받을 벌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13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 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은 징벌의 내용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왕의 땅에', '왕의 원수에게', '왕의 땅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되는 이유가 모두 다윗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징벌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는, 칠년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세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것, 셋째는, 3일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세가지의 벌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습니다.

'7년동안의 기근'은 흉년을 통하여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사회가 피폐해 질 것이고, '3개월의 전쟁'은 대적의 손에 생명을 잃는 것이며, '3일간의 전염병'은 절대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14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전염병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대적의 손에 죽거나 기근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기왕이면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이 세번째 벌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해 7만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쳤던 천사에게 그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게 하십니다. 타작마당은 심판이 이루어 지는 곳으로 알곡과 쪽정이가 나뉘는 곳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이죠.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차라리 백성이 아닌 자신을 벌해달라 간구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갓을 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그 명령을 따라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며 타작마당과 제사에 쓸 것을 그냥 바치겠다고 제안하지만, 다윗은 값을 주고 삽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고 재앙을 완전히 멈춥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화목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자리에는 나중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이렇게 사무엘하의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 멋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안되는 인생이구나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나를 불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말아 주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7주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